

# TRANS- HUMANITIES

---

**Title :** 나츠메 소세키의 만주 기행을 통해 역사와 문학의 경계 넘기:  
『만주와 한국 여기저기』(滿韓ところどころ)를 중심으로  
**Crossing the Line between History and Literature  
through Natume Soseki's Travel Essay *Here and There in  
Manchuria and Korea***

Author(s) : 김영숙 (GIM Youngsuk)

Source : *Trans-Humanities*, Vol. 5 No. 2 (2012), pp. 59-90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http://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이화여자대학교**  
EWHW WOMANS UNIVERSITY

## 나츠메 소세키의 만주 기행을 통해 역사와 문학의 경계 넘기

- 『만주와 한국 여기저기』(滿韓ところどころ)를 중심으로 -

김영숙

### 1. 머리말

2012년 4월 11일 국회의원 총선거의 화두는 바로 1%와 99%의 대결이었다. 야당은 현 정권의 정책이 전 국민의 1%에 해당하는 특권층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99%의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부르짖었고,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의 이런 이분법적 비난을 비껴가면서 서민 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다. 이 배경에는 여당이 특권층만의 이익을 대표하는 집단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이 있었다. 어디까지가 전 국민의 상위 1%에 해당하는가, 과연 현 정권의 정책이 특권층 위주인가 하는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번 총

---

김영숙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L0015).

www.kci.go.kr

선거가 1%와 99%, 또는 특권층과 서민을 대비시키면서 전개되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현대사회에서 1%의 특권층과 99%의 다수를 가르치는 기준은 경제력이다. 고학력은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안정의 필수조건이기는 하지만 결코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 한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떠했을까? 근대 교육이 처음 시작되고 소수만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시대에는 학력과 사회적 성공의 상관관계가 보다 밀접했으며 엘리트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출세가 보장되었다. 물론 고학력의 엘리트층을 특권층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고학력이 입신출세와 경제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엘리트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엘리트와 입신출세의 상관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를 일본의 메이지시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처음으로 교육시스템이 갖춰지고 고등교육이 정비될 무렵의 예를 일본의 문호 나츠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삶과 문학을 통해 들여다 볼 수 있다. 소세키 문학 속에는 그 자신의 삶과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 허구와 실제의 경계가 모호하다. 그리고 어쩌면 그 경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소세키의 문학 세계는 그 자신이 살았던 메이지 시대의 사회상과 문화 전반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본고에서는 그의 작품 중 『만주와 한국 여기저기』(滿韓ところどころ)를 분석함으로써 메이지시대의 엘리트교육과 사회 진출의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만주와 한국 여기저기』는 1909년 10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연재된 소세키의 만주와 한국 기행문이다. 이 글은 한국이 아직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인 1909년에 쓰여졌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지만, 소세키가 당시의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으며 한국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하는 관점에서 읽으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까지 써오다보니 선달그름이 되었다. 2년에 걸쳐 연재하는 것도 이상하니 일단 마치기로 하겠다’(夏目漱石, 『夏目漱石全集 7』

56년, 책을 선정한 펙 소세키는 최종에 소세키(峯崎)를 중안했다. 『다세키런 데모』(夏目漱石文集)에 왕 쟁연 외록 하대란 「만주와 한국 여행기」가 포함된 것만 보더라도 소세키의 관심은 훨씬 광범위했다. 작품을 분석한 일본에 대해서는 소세키의 이국 체험, 혹은 내셔널리즘 시각에 대한 비판<sup>1)</sup>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

비록 만주 여행의 중간에서 갑자기 끝을 맺지만 여전히 이 글은 매력 있는 소재이다. 첫째는 러일전쟁의 결과 만주 이권을 차지하여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만주 이권을 경영하게 된 일본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둘째는 만철이 장악한 남만주 주요지역을 소세키가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살펴본 기록이라는 점이다. 셋째는 소세키가 당시 일본의 만주 관계 요직에 있는 인물들과 광범위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만주와 한국 여기저기』를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는 소세키가 만주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들과의 관계를 메이지 엘리트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분석<sup>2)</sup>하여 제국대학 입학 전과 그 후의 삶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로는 소세키의 만주 기행의 발자취를 좇으면서 일본의 만주의 지배 기구와 그 시스템을 분석하고자 한다.

- 
- 1) 이러한 연구로는 강우원용. 「국민작가」가 스쳐간 만주와 「무명작가」가 발견한 만주: 나쓰메 소세키와 기야마 쇼헤의 경우. 『동아시아문화연구』46, 2009; 윤혜영. 「소세키 소설 속의 한국·만주·서양의 형상」. 『일본연구』37, 2008; 장남호.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아시아」. 『일본어문학』6, 1999 등이 있다.
  - 2) 소세키와 학벌사회를 다룬 논문으로는 권혁진, 박혜민. 「나쓰메 소세키의 생애와 문학에 미친 학벌 고찰-제국대학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50, 2011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그의 다른 작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소설의 내용 분석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

단한 주가 달려 있어 자칫 지나쳐버리기 쉬운 인물이나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만주와 한국 여기저기』는 기행문이지는 하나 여행 일정을 날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친절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소세키의 일정은 일기와 대조하면서 날짜별로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일기는 나츠메 소세키전집간행회(夏目漱石全集刊行會)가 1928년에 간행한 『소세키전집 제16권』(漱石全集第十六卷)을 사용하였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두 가지의 경계를 넘고자 한다. 첫째는 문학작품을 역사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역사와 문학의 경계를 넘을 것이며, 둘째로는 메이지시대 일본의 ‘내지’와 ‘외지’의 경계를 넘어 당시의 역사상과 생활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메이지 엘리트교육의 첫 단계, 예비문과 구제 고등학교

『만주와 한국 여기저기』는 기행문이지만 이 글 속에는 많은 인명이 나온다. 그 인물들은 소세키가 만주에서 만난 중요기관의 인사들이기도 하지만 소세키가 그 이전부터 알고 지낸 인물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즉, 소세키가 학교 교육을 통해 관계를 맺었던 친구나 선배, 후배를 만주에서 다시 만나거나 회상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 가운데 소세키의 제국대학 입학 이전의 인맥들을 통해 일본 근대 교육에서 구제 고등학교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츠메 소세키는 1967년 도쿄(東京)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메이지유신(明治維新) 1년 전이었으니 소세키가 에도시대(江戸時代)의 마지막 해에 태어났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일본이 태음력에서 태양력으로 바꾼 것이 1872년이니 소세키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이미 양력을 사용했다. 따라서 만으로 나이를 계산했을 때 소세키는 메이지 10년에 10세, 메이지 20년에 20세를 맞게 된다. 따라서 그의 인생은 메이지리는 연호와 더불어 나이를 먹어가는 상징적인 메이지 1세대라고 할 수 있다.

소세키의 만주 여행은 만철 총재 '제코(是公)'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제코라는 인물은 나카무라 요시코토(中村是公)를 말하며 '是公'를 인명사전에 따라서는 '고레키미'라고 읽기도 한다(秦郁彦 168-169). 소세키와 나카무라는 서로를 오랜 동안 정식 이름이 아닌 '제코', '긴짱'<sup>3)</sup>이라 불렀는데 소세키는 만주 여행 기간 동안 남들이 총재, 총재하는 바람에 '25년래 익숙하게 불리운 제코'를 공식적으로 총재라 불러주어야 했다. 이에 대해 소세키는 '남들이야 뭐라 하든 나만은 역시 옛날처럼 제코 제코라 부르고 싶었으나 중과부적으로 할 수 없이 모처럼의 친구를 타인 취급하며 50여 일 간 지낸 것은 유감'(夏目漱石, 『夏目漱石全集 7』 438)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그런데 1909년 9월 6일 만철 본사가 있는 다롄(大連)에 도착한 소세키 앞에 9월 8일 또 한 명의 인물이 나타났다. 소세키의 방으로 호텔 보이가 가져온 명함에는 '도호쿠대학(東北大学) 교수 하시모토 사고로(橋本左五郎)'라고 쓰여 있었다. 그 이름을 보고 소세키는 '메이지 17년 무렵 고이시카와(小石川)의 절 2층을 빌어 함께 자취를 한 적이 있었던'(『夏目漱石全集 7』466) 시절을 회상하였다. 하시모토는 소세키가 예비문 수험을 준비하던 시절 함께 자취를 하면서 '사고'라는 애칭으로 불렀던 친구였다. 그런데 그 하시모토가 2, 3개월 전에 만철의 의뢰로 몽고의 축산상황을 조사하러 갔다가 조사가 끝나 지금 다롄에 막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들의 인연이 시작되는 일본의 근대 중등교육 시스

---

3) 소세키의 본명은 '긴노스케(金之助)'이므로 '긴짱'이라는 애칭으로 불리었다.

템과 예비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은 1877년 4월 11일 도쿄대학(東京大学)을 설립하였다. 이 일본 최초의 대학은 도쿄 가이세이학교(東京開成學校)와 도쿄의학교의 통합으로 이루어졌는데, 가이세이학교는 외국의 문헌을 연구하고 교육하기 위해 에도막부가 설립하였다. 이후 메이지정부에 계승되어 정부기관으로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의 3과를 교육하는 한편, 번역, 출판 허가를 담당하였다. 도쿄대학은 수업 연한 4년으로 법·리·문·의의 4학부와 학부 진학 과정인 예비문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비문을 졸업하고 입시를 통해 도쿄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문 자체가 도쿄대학의 구성 단위라는 점이다. 이것은 가이세이학교 보통과 예과가 중등교육기관 관립 도쿄영어학교에서 수업 연한 4년의 도쿄대학 예비문으로 재편된 것으로서 도쿄대학 법·리·문 3학부 진학자는 예비문 교육 이수자 의무(교육 이수 언어인 구미어 습득)였는데 1882년에는 의학부 예과도 예비문에 통합되었다. 당시 일본의 대학에는 근대 교육을 담당할 일본인 교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업은 모두 서구어로 진행되었고 예비문은 이런 교육의 기초가 되는 어학을 학습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또한 예비문은 아직 일본에 중학교육기관이 정비되지 않은 시기에 유일한 예비교육기관이었다.

그러나 일반 중학교에서 영어 등 어학교육이 중심이 되는 예비문에 들어가는 쉽지 않았다. 소세키는 1881년 도쿄부립 제1중학교를 중퇴하고 니쇼가쿠사(二松學舎)로 전학하여 한학, 한서, 소설 등을 공부하였으며 1883년에 간다(神田) 스루가다이(駿河台) 세이리츠가쿠사(成立學舎)에서 대학예비문 입학 준비를 했다. 1909년 소세키가 쓴 「나의 학생 시대」(私の學生時代)라는 글에 따르면, 세이리츠가쿠사의 교실은 살롱경하고 지저분했으며 대학생이 학자금 마련을 위해 교사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夏目漱石全集 10』 122). 일종의 진학 학원인 세이리츠가쿠사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가 바로 하시모토 사고로 등이다. 특

히 하시모토는 소세키보다 영어나 수학에서 뛰어났다. ‘입학시험 때 대수가 어려워서 어쩔줄 몰랐을 때 옆 자리의 하시모토가 슬쩍 가르쳐주어서 덕분에 들어갔다. 그러나 가르쳐준 하시모토는 보란듯이 낙제(夏目漱石, 『夏目漱石全集 7』 466)한 사연이 있었다. 다행히 하시모토가 추가시험에 합격하여 같이 공부하게 되었다.

소세키가 예비문을 다닐 무렵 수업 연한이 예비문 5년, 대학 3년으로 변화하였다. 대학까지 8년이란 전체 연한은 같아졌지만 예비문 과정이 예과 3년, 본과 2년으로 개편된 것이다. 더욱이 중학 졸업자는 영어전수과 1년을 다니면 바로 본과로 진학하게 되어 수업 과정을 줄일 수 있었다. 중학교를 도중에 그만두고 예비문에 입학하기까지 니쇼가쿠사와 세이리츠가쿠사를 거친 소세키로서는 많은 시간을 낭비한 셈이지만 당시 이러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소세키는 예비문 재학 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옛날 예비문에 들어가 급제나 낙제나 하던 시절에는 평안하지 않았다. 그 무렵 여럿이서 간다(神田) 사루가쿠초(猿樂町)의 스에토미야(末富屋)라는 하숙에 진을 쳤다. 앞뒤로 18명 가까웠는데 하나같이 바보라서 공부를 경시하는 것이 자기의 천직인줄 알았다. 읽기 연습은 거의 안 하고 한 학기 한 학기를 간신히 진급했다. 교실에서 영어를 지적당하면 잘 모르는 번역을 적당히 했다. 수학은 풀 수 있을 때까지 칠판 앞에서 있기 예사였다. 나 같은 이는 1시간 정도 서 있었다. 아침마다 오늘도 서 있어야 하나 라고 하면서 집을 나셨다. 나는 입학 당시에야말로 하가 아이치(芳賀矢一) 옆에 앉아 있었는데 시험 때마다 미끌어져 간신히 살아남았다. 시험성적이 나오면 혼자서는 무서우니 모두 함께 보러갔다. 60점대에 걸려 있었다. 제코나 나나 뤼순에서 경시총장을 하고 있는 친구가 낙제를 하면서도 매달려 있는 와중에 사고만이 결연히 훗가이도로 떠났다(469).

이 무렵 함께 자취를 하던 친구 사이인 하시모토나 나카무라, '뒤순에서 경시총감을 하고 있는 친구'라고 불린 사토 도모쿠마(佐藤友熊) 등과 소세키가 만주 여행 중 재회하게 된 점은 흥미롭다. 도쿄 출신의 소세키 눈에는 세이리츠가쿠샤 시절 하카마 차림에 게타를 신은 채 교실에 들어왔던 사츠마번(薩摩藩) 출신의 사토가 색다르게 보였다. 소세키는 사토에 대해 마치 '백호대 중 한 명이 활복에 실패하여 입학시험을 치러 도쿄에 나온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고 회상하였다(485).

복막염으로 유급을 하는 등 여러 난관을 겪고 소세키가 본과로 진학하는 것은 1888년이지만 그 사이에 예비문은 제1고등중학교로 개칭되었다. 1886년에 제국대학이 발족하면서 도쿄대학과 일관교육을 하는 예비문이 같은 해 '중학교령'에 의해 고등중학교로 개편된 것이다. 그리고 이 고등중학교는 1894년 '고등학교령'에 의해 고등학교로 개칭되었다. 이 '고등학교'가 폐교하게 되는 것은 1950년인데 이후의 고등학교와 구별하기 위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구제 고등학교'라 부른다. 중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은 결코 엘리트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근대적 교육제도를 갖추어 서양식 교육을 도입하고 심상중학교-고등중학교-제국대학의 엘리트 코스(水谷三公 66)를 설정한 메이지 일본사회에서 구제 고등학교는 1945년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왔으며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을 부여하였다.

교육사회학자 다케우치 요(竹内洋)는 1945년 이전 일본사회의 학력 단층을 3개라고 보았다. 첫 번째 단층은 심상소학교 또는 고등소학교를 졸업한 서민과 중등학교 졸업자인 지방의 중견 인텔리와의 단층, 두 번째 단층은 중등학교 졸업자와 전문학교 및 대학 등의 고등교육 졸업자 사이의 단층, 세 번째 단층은 전문학교 및 사립대학 졸업자와 제국대학 졸업자 사이의 단층이라는 것이다(竹内洋 32). 결국 심상소학교나 고등중학교 졸업자가 80% 이상인 서민 세계와 구제 고등학생 또는 그 졸업

생 사이에는 단층이 세 개나 존재한다.

이 단층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하여 구제 고등학교 졸업자를 당시의 20세 남자 수로 나누어 표로 나타내었다.

〈표 1〉 구제 고등학교 재학률(34)

연도	학교 수	졸업자 수	20세 남자 수	재학률	중등학교 재적자 비율
1893	7	513	389,073	0.13%	-
1908	8	1269	454,330	0.29	-
1925	23	4345	507,656	0.86	13.4%
1930	33	5486	607,136	0.90	15.7
1940	34	4674	651,100	0.72	20.3

20세 남자 수를 고등학교 졸업자 수로 나누어 보았을 때 1893년에는 750명에 한 명꼴이 구제 고등학교 졸업생이었다. 시대가 갈수록 고등학교 숫자도 늘어나고 졸업생 수도 증가하지만 고등학생의 비율은 1%를 넘지 못하는 현실이었다. 이 1%도 되지 않았던 엘리트들을 다케우치는 ‘학력 귀족’(39)이라고 표현하였다.

소세키는 예비문에서 제1고등중학교로 개편되는 시기에 학력 귀족으로서 재학하였으며 1890년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제국대학에 진학하였으니 같은 연령대 남자들의 0.1% 정도에 속하는 대표 엘리트였다. 그런 그가 만주에서 재회한 친구들이 모두 만철 총재나 대학교수, 경시총장 등의 지위에 있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더욱이 이들은 중간에 낙제한 후 졸업 후 정해져 있는 진로인 제국대학 진학의 길을 버리고 홀연히 떠나 삿포로(札幌)농학교에 입학한 하시모토 이외에는 모두가 제국대학 졸업자들이 아닌가.

게다가 고등중학교 학생은 입시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었

던 듯하다. 소세키는 고등중학교 예과 3학년 때인 19세 때 그리 유복하지 않은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학자금을 스스로 마련하기 위하여 나카무라와 함께 도쿄 혼소(本所)에 있었던 고토기주쿠(江東義塾)라는 사숙의 교사를 했다. 그때 받았던 월급 5엔은 그리 큰 돈이 아니었지만 사숙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월 25전의 학교 수업료와 2엔의 기숙사비 등을 충당하면 생활에 부족하지 않았다. 더욱이 사숙의 수업이 오후에 2시간 뿐이라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 가르치고 자기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夏目漱石, 『夏目漱石全集 10』 125).

소세키는 자신의 예비문 시절과 공부를 안 해서 너 나 없이 낙제를 거듭한 친구들을 평범하고 한심하게 회상하고 있지만 이 과정이 같은 연령대 소년들 중 0.1%대의 좁은 문이었다는 점, 근대 일본의 중등교육이 첫 걸음을 떴을 때 엘리트교육의 제1단계로서 예비문 입학을 위해서도 몇 년간의 수험공부가 필요했다는 점에 주의하면서 읽어야 한다. 예비문을 포함한 1950년 이전의 구제 고등학교는 제국대학 진학과 졸업 후의 출세 코스의 출발선이었던 것이다.

### 3. 근대 국가 건설에 필요한 엘리트 양성소, 제국대학

앞에서 살펴본 고등중학교는 제국대학이 탄생할 때 제국대학의 예비교육기관으로 설립된 것이었다. 그럼, 제국대학은 어떤 구상 아래 만들어졌을까?

1882년 당시 참의였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서구방문조사단으로서 프랑스에 체재했을 때, 수행원 사이온지 경모치(西園寺公望)를 찾아와, ‘앞으로는 사츠마(薩摩), 초슈(長州) 뿐 아니라 전국에서 유능한 인재를 관리로 채용하고 싶다’고 말했다(水谷三公 92). 이에 대해 사이

온지는 독일의 경우 비스마르크가 베를린제국대학을 설립, 관리양성소로 삼았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하면 전국 어디 출신인지를 묻지 않고 등용하여 훌륭한 관리가 각 방면에서 나오게 되었으며 독일에 패한 프랑스도 이를 모방하여 관리 양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이토는 귀국 후 독일 모델을 바탕으로 제국대학을 만들어 특정 번 출신자로 제한되었던 당시의 관료 임용제도를 개선하고, 출신 번에 상관없이 자격 있는 자를 대학에 입학시켜 관리로 양성하고자 하였다.

당시 각 관청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를 각각 설립하였다. 사법성이 운영한 명법료(明法寮, 후의 법학교), 공부성이 세운 공부대학교, 내무성에서 농상무성 관할로 옮긴 고마바(駒場)농학교, 홋카이도 개척사(北海道開拓使)가 설립한 삿포로농학교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국가 전반에서 필요로 하는 통일적인 인재 양성은 아직 이뤄지지 못하였다.

1886년 3월 1일 칙령 제3호로 ‘제국대학령(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A03020000700문서)’이 공포되었다. 그 내용은 총 14조에 걸쳐 제국대학의 목적과 설립, 운영을 규정하였는데 제1조에서 ‘제국대학은 국가의 필요에 응하여 학술 기예를 가르치며 그것을 깊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을 분과대학으로 구성하되, 제10조에서 분과대학은 법과대학, 의과대학, 공과대학, 문과대학 및 이과대학으로 정하였다. 즉, 일본 최초로 설립된 제국대학은 5개의 분과대학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제국대학을 구성하는 교직원들은 모두 관료에 해당하였다. 총장은 칙임관, 교두 이하 교수, 조교수, 사감은 모두 주임관, 서기는 판임관에 해당하였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국립대학 교수는 공무원의 신분을 누리고 있으므로 이를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으나 이는 보통 공무원과는 달랐다. 제국대학 교직원들은 모두 고등관 신분으로서 특히 총장은 내각 국무대신과 같은 급에 해당했다(百瀬孝 93-95). 한편, 1897년 교토(京都)제국대학이 설립되자 제국대학은 ‘도쿄제국대

학'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전국에서 잇따라 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일본이 설립한 제국대학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일본이 설립한 제국대학

	명칭	설립년도	현재 명칭
1	제국대학	1886	도쿄대학
2	교토(京都)제국대학	1897	교토대학
3	도호쿠(東北)제국대학	1907	도호쿠대학
4	큐슈(九州)제국대학	1910	큐슈대학
5	홋카이도(北海道)제국대학	1918	홋카이도대학
6	경성(京城)제국대학	1924	서울대학교
7	타이페이(台北)제국대학	1928	타이완대학
8	오사카(大阪)제국대학	1931	오사카대학
9	나고야(名古屋)제국대학	1939	나고야대학

이처럼 일본은 식민지를 포함하여 총 9개의 제국대학을 설립하였는데 설립 시기와 지역에 따라 각 제국대학의 분과대학 구성은 달랐으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기본 성격에는 차이가 없었다.

한편, 제국대학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이상, 제국대학 졸업자를 국가가 어떻게 활용하고 관직에 임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다. 1885년 초대 내각 총리대신에 취임한 이토는 관료의 채용과 임용을 시험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기본틀은 독일식 제도에서 원형을 가져온 것으로서, 상급관료는 대학에서 법학교육을 수료한 것을 전제로 국가시험을 치러 일정한 견습 기간을 거쳐 정규관리로 채용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위해 제정된 것이 1887년 7월 23일에 칙령 제37호로 제정된 '문관시험 시보 및 견습 규칙(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A03020013500문서)'이었다. 제1조에서는 다

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령에서 문관이라고 칭하는 것은 주임, 관임의 문관을 총칭하며 시보라고 칭하는 것은 칙령 제13호 학위령에 따라 법학박사, 문학박사의 학위를 받았거나 법과대학, 문과대학 및 구 도쿄대학 법학부, 문학부를 졸업하거나 고등시험을 거쳐 합격하여 고등관의 실무를 연습하는 자를 말한다. 견습이란 관립부현 중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관립부현립 학교 및 제국대학의 감독을 받는 사립 법학교 및 사법성 구 법학교의 졸업증서를 가지거나 보통시험을 거쳐 합격하여 관임관의 사무를 연습하는 자를 말한다.

제국대학과 관련해서는 제3조에서 '3년 이상 분과대학 교수를 역임한 자는 고등시험 및 실무 연습을 요하지 않고 곧 본관으로 임명하며, 법학박사, 문학박사의 학위를 가진 자 또는 법과대학, 문과대학 및 구 도쿄대학 법학부, 문학부 졸업생은 고등시험을 거치지 않고 시보로 임명할 수 있다.'는 면제조항을 규정하였다. 즉, 문관시험에 합격해야 시보가 될 수 있는 사립학교 출신자에 비해 제국대학을 졸업하면 그대로 관리 임용의 첫발인 시보가 될 수 있었다. 이는 제국대학 법과, 문과 출신의 학사들에게 주는 특전인 동시에 학사 부족분을 메우기 위하여 학사 칭호가 없는 전문학교 졸업생에게도 관리 등용시험 수험자격을 인정하였던 것이다(水谷三公 105). 이는 각 관청이 시보 채용 예정 수를 제국대학 학사 시보로 임용하고 나머지를 시험을 통해 채우는 형태로서 현대 사회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이지만 시험을 통해 인재를 등용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정비된 시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사츠마, 초슈 등 특정지역 출신이 메이지정부를 장악하던 시대에서 제국대학 출신자, 그 다음으로 사립학교 출신자로 문호가 개방되는 단계를 볼 수 있다.

1890년 의회제도 창설과 더불어 시보시험은 중지되었으며 새롭게

1893년 칙령 제197호로 ‘문관시험 규칙(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A03020156800문서)’을 제정하였다. 제9조에서 ‘문관고등시험을 나누어 예비시험과 본시험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에서 ‘제국대학 법과대학, 구 도쿄대학 법학부, 문학부 및 구 사법성 법학교 정칙부의 졸업증서를 가진 자는 예비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시보시험의 제국대학 졸업자의 무시험 시보 임용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문관시험에서도 제국대학 법학사들은 예비시험 면제의 특권을 누렸다. 이처럼 제국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엘리트 선발 교육 시스템의 확립은 입학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높은 학력을 얻는 것을 입신출세의 요건으로 정형화시켰다.

『만주와 한국 여기저기』에서 언급되는 소세키의 제국대학 동기나 선배들은 모두 이런 특혜를 누리며 관료로 임용되었는데 이 시기 제국대학 출신자가 얼마나 사회에서 특혜를 받았는지를 보여준다.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관료가 되는 경우 문관시험에서 누리는 특혜가 있었다면 교육자가 될 경우 성적 우수자에 대한 관비(官費) 유학의 혜택이 있었다. 소세키는 1900년 5월 영어 연구를 위해 2년간의 영국 유학을 명받고 런던으로 건너갔다. 이때 함께 독일 기선 ‘프로이센’호에 올라 서구 유학 길에 오른 것은 소세키의 동기 하카 야이치 외에 후지시로 데이스케(藤代禎輔) 등 5명이었다. 후지시로는 독일에 유학한 후 교토 제국대학 교수를 역임하면서 일본 독문학연구의 1세대를 열었다. 이때 소세키가 받은 유학비는 연간 1800엔이었지만 당시 지원되는 경비는 실제 외국 생활에서는 턱턱하지 못한 금액으로서 소세키 자신도 여러 차례 경비 부족을 호소한 바 있다.

『만주와 한국 여기저기』 속에서도 관비 유학생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다치마나 센자부로(立花銑三郎)라는 인물이 언급되었다. 다롄에서 소세키는 10년 전 상하이(上海) 영국 세관에서 근무하던 영문과 2년 선배 다치마나 마사키(立花政樹)가 현재 다롄세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 그런데 제국대학 문과에는 같은 무

럽 입학한 또 한 명의 다치바나가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큐슈 야나가와 번(柳川藩) 출신이며 기숙사에 들어왔으므로 당시의 재학생들은 마사키 쪽을 마사키공이라 부르고, 속칭인 센자부로를 센상이라고 불렀다. 마침 다렌세관장 마사키공과 재회하게 되면서 소세키는 '나와 전후한 시기에 서양에 갔으나 불행히도 폐병에 걸려 귀국 길에 홍콩에서 죽은'(『夏目漱石全集 7』 458) 다치바나 센자부로를 떠올렸다. 다치바나 센자부로는 1892년 제국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학습원 교수가 되었으며, 1899년 교육 연구를 위해 영국과 독일에 유학하였으나 귀국 길에 사망하였다. 두 번째, 만주에서 다시 만나 소세키와 여행을 함께 한 예비문 시절의 친구 하시모토 역시 서양 유학파였다. 소세키는, 삿포로농학교를 졸업한 하시모토가 '독일에 갔는데 언제까지고 돌아오지 않아 5, 6년간 있었다. 유학기간의 몇 배나 있었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했을까?(467)'라고 회상하였다. 당시의 국비 유학은 대학을 정하고 유학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분야의 연구를 명받아 2~3년간 단기간 체재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유학 기간의 몇 배나 독일에 체재한 하시모토가 유학비용을 어떻게 충당했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당시 일본은 근대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외국인 교수를 일본인 교수로 교체하기 위해 외국의 교육을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미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자들을 문부성이 단기로 파견하여 외국의 교육과 특정 학문 분야를 조사, 연구하게 하였다. 이 밖에 여성들도 파견하였는데 문부성이 파견한 여자 해외 유학은 1886년 유치원 연구를 위해 파견한 가토 도메(加藤泊錦)가 처음이라고 한다. 이후 고등여자사범학교 출신의 야스이 데즈(安井哲), 오오에 스미(大江スミ) 등을 가정학 연구를 위해 파견하였다(김영숙 12). 문부성 관비 유학은 관학 출신 교육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특정 분야에 대한 서구 교육시스템에 대한 조사와 학문 연구 장려를 통해 일본에 근대 학문을 도입하려는 목적 아래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세키의 경우를 보면, 영국 유학을 명받을 당시 구마모토 제5고등중학교 교수의 신분이었으나 귀국 후 제5고등중학교를 그만두고 도쿄로 돌아가 1903년 4월부터는 제1고등중학교 교수 겸 도쿄제국대학 영문과 강사로서 주 3시간 영문학 형식론을 강의하게 되었다.

근대 일본은 이처럼 제국대학을 설립하여 국가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한편, 외국인이 자국어로 강의를 하던 시스템에서 일본인 교육자들을 서구에 유학시켜 제국대학을 점차 일본인 교수 중심으로 바꾸어갔다.

#### 4. 만주에서 만철이 이룬 것을 보여주다

한때 ‘만주’라고 불리었던 지역은 오늘날의 중국 동북부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1945년 일본의 패배와 ‘만주국’의 소멸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인과 일본인들 사이에 ‘그때 그 만주’의 기억을 가진 세대가 생존하는 한 ‘만주’라는 용어는 계속 통용될 것으로 보인다. 본래 ‘만주’라는 말은 여진족이 자신을 칭하는 말로서 16세기 말 무렵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당시 여진족 사이에 널리 퍼져있던 문수보살(만주시리) 신앙에서 비롯된 말로 ‘충명한 자’를 의미했다(岸本美緒 46). 이 지역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것은 러일전쟁 이후이며 그 중심을 이루는 기관 중의 하나가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이다.

소세키의 만주 여행은 친구인 만철 총재 나카무라에게 ‘남만철도회사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야고 진지하게 물어본 것에서 비롯되었다. ‘아무 것도 모르면서 잘난 체 하면 곤란’하니 ‘해외에서 일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잠깐 보고 오는 게 좋을 것’(夏目漱石, 『夏目漱石全集 7』 435-436)이라는 이유로 나카무라는 소세키에게 만주로 떠날 때 동행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급성 위염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함께 출발하지 못 했던 소세키는 1909년 9월 3일 오사카(大阪)에서 다렌행 배에 올랐다.

1909년 9월 3일에서 10월 14일까지의 약 50일간의 소세키의 여행 일정은 다렌, 뤼순(旅順), 형웨이청(熊岳城), 닝커우(營口), 탕링즈(湯嶺子), 푸순(撫順), 하얼빈, 창춘(長春), 평톈(奉天)을 거쳐 한국의 평양, 경성, 인천, 개성을 둘러본 후 10월 14일 일본 시모노세키(下関)항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만주와 한국 여기저기』는 이 중에서 푸순까지의 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소세키의 여행기는 크게 만철과 관련된 부분과 기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다렌과 뤼순에서는 만철 또는 일본 관청의 안내를 받으며 만철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또는 어떠한 실적을 올렸는가를 중심으로 현지를 시찰하나 다른 지역에서는 자연과 풍물을 감상하는 평범한 여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읽을 필요가 있다. 사실 만주에서 만철이 건설한 주요 도시는 다렌, 뤼순, 평톈이지만 도중에 연재가 중단되는 『만주와 한국 여기저기』에서는 평톈이 자세히 소개되지 못 하였다.

소세키의 『만주와 한국 여기저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비난이 따랐다. 첫째는 중국인, 조선인에 대한 제국주의적 멸시와 차별의 시선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나 현상으로서 쿨리의 불결함을 지적한다든가, 조선인 인력거꾼의 난폭한 운전 등을 지적하는 것이 그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차별의식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인력거는 일본인이 발명한 것이지만 끄는 사람이 중국인이거나 조선인일 경우 결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고려 유적을 보기 위해 인력거를 탔을 때는 ‘영덩이가 이불 위에 닿을 짬도 없이 흔들려서’ ‘조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싶을 만큼 잔혹한 취급을 받았다’(574)는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는 소세키의 만주 여행이 만철의 홍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의 문제이다. 『만주와 한국 여기저기』는 소세키의 작품 중 유일한 기행문이기도 하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독자를 친절하게 안

내하는 글이 아니다.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 소세키는 곧잘 과거의 에피소드를 늘어놓거나 회상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기를 같이 읽으며 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일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더구나 만철의 안내를 받아 돌아본 곳도 자신의 관심에 따라 자세히 기술하거나 간단히 언급하는 등 친절한 안내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만주와 한국 여기저기』가 도중에 연재가 중단된 글이라는 점이다. 만주와 한국을 두루 소개하는 글이기는커녕 제목과 달리 한국 내용이 전혀 없고 만주도 중간에서 부자연스럽게 끝나고 있다. 만약 이런 글을 책으로 엮는다면 뒤의 내용을 보강하여 제목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거나 제목을 바꾸게 될 것이나 소세키의 이 글은 미완인 채 본래의 제목 그대로 출간되어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럼, 연재가 중단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1909년 10월 26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사건에 따른 신문지면 구성의 변화였다.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 7회 연재가 중단된 점, 다른 특집 기사에 밀려 지면이 이동된 점 때문에 결국 소세키는 ‘아직 쓸 것은 많지만 벌써 선달그름이니 앞서서 그만둔다’는 말로 펜을 꺾었다(久保尚之 185-186). 따라서 필자의 개인적 감정에 따라 중간에 중단된 연재를 만철에 대한 홍보 기사로 보기는 어렵다.

소세키의 만주 여행은 친구이자 만철 총재인 나카무라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만철 총재’ 나카무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나카무라 요시코토는 소세키와 마찬가지로 1893년 제국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오키와시(大藏省) 시보를 거쳐 경제 관료의 길을 걸었다. 이후 아키타현(秋田県) 수세장을 거쳐 타이완총독부에서 총무국장 겸 재무국장을 역임하였다. 타이완총독부 민정장관 출신으로서 만철 제1대 총재로 옮기게 된 고토 신페이(後藤新平)는 아직 38세에 불과한 나카무라를 만철 부총재로 발탁하였다. 이로써 일본의 타이완 지배 경험 이 만주로 이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토는 러일전쟁의 결과 포츠머스

조약이 조인되기 전에 만주 경영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첫머리에서 ‘전후 만주 경영의 유일한 비책은 밖으로는 철도 경영의 가면을 쓰고 안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실행하는 데 있다’고 적었다(北岡伸一 84). 이후 일본의 만주 지배가 만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만철이 단순한 철도 경영 외에 철도에 부속되는 사업으로서 광업, 수운업, 전기업, 철도 화물의 위탁 판매, 창고업, 철도 부속지에서의 토지 및 가옥 경영, 철도역에서의 호텔과 창고 건설, 다렌항의 시설 건설, 철도 부속지에서의 행정 등 산업 전반을 장악했다는 점에서 고토의 계획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歴史群像シリーズ 84 満州帝国』 62).

고토가 철도원 총재로 부임하면서 1908년 7월 14일 퇴임하자 약간의 공백을 두고 나카무라는 12월 19일 만철 제2대 총재로 취임하였다. 중앙 정계에서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나카무라에 대해서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은 ‘고토 총재가 통이 크다면 나카무라는 소박’하다고 평가하였는데 고토 신페이가 중앙 정계 연락, 외국 방문 등으로 재임기간의 약 4분의 1만 만주에 거주했을 때 사실상 현지에서 지휘를 맡은 것은 나카무라였다(財団法人満鉄會 41). 제1대와 제2대 총재 아래서 만철 이사를 지낸 다나카 세이지로(田中清次郎)는 두 사람을 비교하여, ‘고토상은 참모장, 나카무라상은 군사령관이었다’고 평가하였다(44). 아이디어맨인 고토에 비해 나카무라는 냉정하게 정세를 판단하여 일을 실행시킨다는 의미였으며 고토가 계획한 여러 가지 사업이 완성된 것은 실제로 2대 총재시대였다(43). 이후 나카무라는 1918년 철도원 총재, 1924년 도쿄시장 등을 역임하는데 그 자리의 전임자가 고토라는 점에서 두 사람이 타이완총독부에서 맺은 인연은 평생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소세키가 다렌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를 러시아가 건설한 도시 ‘다루니’에서 일본의 ‘다이렌’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주목하면서 살펴보자. 9월 6일에 다렌에 도착한 소세키는 그 길로 나카무라의 집을 찾아가는데 그 집 서재에서 청나라 황제가 고토 신페이에게 하사한 액자를 보

게 된다. 소세키는 정연한 글씨체를 보고 ‘고토상도 만주에 오니까 글씨가 훌륭해졌구나.’(『夏日漱石全集 7』446) 하고 감탄했지만 잘 보니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총재 고토 신포이’라는 글씨는 왼쪽 구석에 조그맣게 적혀 있고 오른쪽에 크게 쓰여 있는 것은 청나라 황제의 휘호였다. 즉, 청나라 황제가 써서 고토에게 준 것이었다. 고토는 러시아와 청나라에 대한 정책에도 공을 들여 만철 경영을 시작하기 직전에 북경을 방문하여 서태후와 광서제를 알현하고 실력자 원세개와도 회견한 바 있다(財團法人滿鐵會 26). 아마도 이것은 고토가 이때 받은 것이었으리라.

첫날 밤 나카무라와 만철 부총재 구니사와 신포이(國沢新兵衛)는 소세키를 다렌구락부(俱樂部)에 데려갔다. 구니사와는 직위는 나카무라보다 낮았지만 1889년 제국대학 공과대학을 졸업한 나카무라와 소세키의 선배였다. 소세키가 구경을 하는 사이 구니사와와 나카무리는 회원 명부에 소세키의 이름을 적고 추천하여 소세키가 다렌에 체재하는 동안 다렌구락부에 출입할 자격을 얻게 해주었다. 회원 2명의 추천을 얻으면 구락부 출입이 가능했는데 만철 총재 나카무리는 다렌구락부의 회장이었다. 다렌 시내에 있는 여러 종류의 구락부는 ‘클럽’의 일본식 표기인데 일본의 오락 또는 향락문화를 식민지에 전파시키고 그 지역 특유의 향락문화를 현지 일본인이 즐길 수 있도록 각지에 설립되었다. 구락부는 그 지역 사교계의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현재 인천에도 ‘제물포 구락부<sup>4)</sup>’가 남아 있다.

이튿날인 7일부터는 다렌의 많은 곳을 시찰하였다. 전기장치로 오락을 하는 일본에도 없는 전기공원을 본 후 전차 레일을 깔고 있는 곳에서 중국인 차장의 훈련모습을 구경하였으며, 중앙시험소에서 요리용 콩기름 제조, 콩으로 만든 비누, 고치에서 얻은 실, 고량주 만드는 곳 등을 둘러보았다. 다음으로는 만철이 건물을 기증하고 2~3천 엔의 경비를 들

4) 남아 있는 건물은 해방 후 여러 단체가 사용하였으나 현재 전서관 등으로 사용하여 식민지 시대 인천을 보여주고 있다.

여 지은 사격장에도 가 보았다(夏目漱石, 『夏目漱石全集 7』 453-456). 이 중 중앙시험소는 관동도독부령으로 1907년에 설립되어 1910년 5월에 만철에 이관된 조사기관이었다(財団法人滿鐵會 27).

8일에는 만철 본사 중역실에서 직원들을 일일이 소개받았다. 특히 『만주와 한국 여기저기』에는 만철 이사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철 창립 당시의 이사 명단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만철 창립 당시 만철 이사 명단<sup>5)</sup>

이름	전 직장	전문 분야
노노무라 긴고로(野々村金五郎)	홍업은행	금융
다나카 세이지로(田中清次郎)	미즈이물산	영업
이누즈카 신타로(犬塚信太郎)	미즈이물산	영업
구보타 가즈미(久保田勝美)	일본은행	경리 금융
구보타 세이슈(久保田政周)	내무성	부속지 행정토목
세이노 초타로(清野長太郎)	내무성	부속지 행정토목
구니사와 신베이(国沢新兵衛)	체신성 기사	철도
오카마즈 산타로(岡松参太郎)	교토제국대학	법률

위의 표를 통해 만철이 설립 당시부터 철도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국대학 교수에서 내무성 관료는 물론, 은행, 대기업 미즈이(三井) 등에서 우수한 인재가 차출되었던 것이다. 나카무라가 제2대 총재로 취임하자 이 중에서 구니사와가 부총재가 되었다. 특히 다나카, 세이노, 구니사와, 오카마즈 등 제국대학 출신들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다.

만철 중역을 소개 받은 후 소세키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5) 〈표 3〉은 北岡伸一의 『後藤新平』(中央公論新社, 2000) 87-88쪽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식당은 회사 바깥쪽 2층 넓은 객실인데 밤이 되면 무도회장으로 바뀌며 요리는 아마토(大和)호텔에서 가져왔다(夏目漱石, 『夏目漱石全集 7』 459). 그럼, 여기서 만철 사옥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만철은 1907년 4월 1일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하자 본사를 다렌으로 이전하는데 이때 본사 사옥으로 사용한 건물은 제정러시아의 국책회사 동청철도(東淸鐵道)<sup>6)</sup>가 사무소로 건설한 곳이자 청일전쟁 때까지 다렌시청이었던 곳이었다(『歴史群像シリーズ84 満州帝国』 62). 만철이 러일전쟁의 결과 동청철도의 일부를 할양받아 건설한 철도라는 점에서 이 건물을 만철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상징성을 가졌다. 그러나 소세키가 만주에 가기 직전인 1909년 봄 새로운 사옥을 지어 이전하면서 바로 이 본사 건물이 아마토호텔이 되었다. 그렇다면 소세키가 만주 여행 내내 각지에서 머물렀던 아마토호텔은 어떤 곳일까? 만철은 다렌, 뤼순, 평텐, 창춘에 아마토호텔을 개업하는 한편, 다렌 교외에 해변 리조트로서도 아마토호텔을 개업하고 하얼빈에도 개설하였다. 이중 일본이 독자적으로 건설한 곳은 다렌, 평텐, 창춘, 다렌 교외이다(西澤泰彦 82). 즉, 아마토호텔은 기차역을 중심으로 만철이 건설하거나 경영한 직영 호텔이었으며 당시 소세키는 러시아의 역사가 이어진 아마토호텔에 투숙하였던 것이다.

한편, 나카무라는 조사과장<sup>7)</sup>에게 소세키를 소개하면서 ‘만철사업의 종류와 그 밖의 것에 대해 나중에 이 사람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6) 동청철도는 1896년 6월 러시아가 리홍장(李鴻章)과의 교섭으로 부설권을 획득한 중국 동북지방을 가로지르는 T자 모양의 철도이다. 치타에서 만저우리를 지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르며 그 중간 역인 하얼빈에서 창춘까지 지선이 뻗어 있었다. 러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창춘에서 다렌에 이르는 부분을 차지하여 남만주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초기에는 동청철도라 불리었지만 동지철도(東支鐵道), 중동철도(中東鐵道)라고도 불리었다. 만주지역 이권을 러시아와 분할하는 상징인 동시에 러시아와 일본의 경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 이권을 둘러싼 러일관계, 중일관계에 관해서는 김영숙, 『근대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 선인, 2009. 제3장을 참조할 것.

7) 『만주와 한국 여기저기』에는 가와무라(河村)라고 표기되었으나 가와무라 류지로(川村 柳次郎)로서 1894년 제국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오.’(夏目漱石, 『夏目漱石全集 7』 460)라고 요청하여, 그는 소세키에게 다렌에서 둘러보아야 할 곳을 표로 작성해주었다. 그 리스트에는 오락 기관으로서 구락부, 골프회, 요트구락부 등이 있었고, 참관해야 할 곳으로서 아마기초(山城町)의 다렌의원<sup>8)</sup>, 고다마초(児玉町)의 종업원 양성소, 오우미초(近江町)의 합숙소, 하마초(浜町)의 발전소 등이 있었다. 리스트를 본 소세키는 ‘다렌에 일주일 정도 머물지 않으면 만철사업도 제대로 둘러볼 수 없다’는 것을 납득하면서도 나카무라의 ‘빠짐없이 잘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에 대해서는 자신을 마치 시찰가처럼 본다고 불만을 표하였다(470). 그런데 이 시설들은 일본이 러시아의 부동항 다렌을 넘겨받아 근대 도시로 새롭게 건설한 성과이며 만철과 나카무라가 이 업적을 과시하고 싶어 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로나 마을 이름에 일본식 이름을 붙인 것이 눈에 띄는데 일본은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면서 일본의 지명이나 인명을 붙여왔다. 식민지 조선에도 이런 일본식 거리명을 붙인 바 있다.

9월 9일 소세키가 돌아본 곳은 북공원, 사원구락부, 가와사키(川崎) 조선소 사무소, 전기공장, 일명 ‘유령의 집(化物屋敷)’ 등이다. 특히 가와사키조선소 사무소에서는 스다(須田)라는 인물에게 도크에 3000톤 정도의 배가 드나들 수 있으며, 선거(船渠) 입구가 약 42척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다렌에서 소세키가 둘러본 곳 중 가장 인상적인 장소는 하급사원 합숙소로 사용되는 ‘유령의 집’이었다. 어두운 복도에 방문이 늘어서 있는데 부엌은 대여섯 집마다 하나씩 달려 있고 물은 아래서 길어다 먹으며 변소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소세키는 벽돌건물이지만 외부는 회색으로 낡는데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이 건물을 ‘유령의 집’이라 부르는데 대해 별다른 의문을 품지 않았으나 다나가 이사는 만철

8) 교육, 의료시설의 충실화를 꾀하기 위해 휘순공과학당, 남반의학당(만주의과대학의 전신) 등과 함께 건설되었다(고바야시 히테오 49).

중역들이 처음 다렌에 와서 짐을 푼 곳이 이 건물이라며 ‘유령의 집’이란 이름이 붙게 된 유래를 설명해주었다. 러일전쟁 당시 병원이었던 이곳에서 넘치는 부상자들에게 미처 손을 쓰지 못했는데 그들의 원망스러워하는 비명소리가 다렌 전체에 울릴 만큼 처절했다는 것이다(473-474). 그 후 이 건물에 들어온 만철 중역들은 여러 번 괴이한 일을 겪었는데 소세키의 제국대학 2년 후배이자 만철 이사인 세이노 초타로(清野長太郎)는 으스스한 한기를 느끼고 모직 셔츠를 반 다스나 껴입었다는 것이다. 그런 낡은 병원 건물이 하급 노동자의 숙소로 사용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콩을 찌서 기름을 짜는 곳에 가는데 소세키는 하루 종일 묵묵히 콩자루를 저 나르는 쿨리의 ‘침묵과 규칙적인 운동, 그 안내와 정열이 거의 운명의 그림자처럼’(475) 보인다고 느꼈다. 일본인 안내자는 “일본인은 흉내 낼 수도 없습니다. 저렇게 일하고 하루 5, 6전으로 먹고 사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질렸다는 듯이 말했다. 소세키가 만철의 사업 성과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급 노동자와 중국인의 처참한 생활상을 볼 수 있었던 하루였다.

다음으로 소세키는 만철사원이자 부두사업소장인 아이오이 요시타로(相生由太郎)의 집에도 갔다. 서양식 건물 2층 객실에 오래된 불상과 거울, 도자기 등을 아름답게 장식한 아이오이의 인상을 소세키는 ‘풍류인’(482)이라고 보았으나 그는 1904년 미즈이 모지(門司)지점 근무 당시 노동자 파업을 중재한 바 있는 인물이었다. 이때 모지 지점장이었던 이누즈카 신타로(犬塚信太郎)가 만철 이사로 부임하면서 만철사원으로 발탁하였다. 아이오이는 다렌 부두의 하역 업무를 일원화하였으며 도서실, 구락부, 운동장, 요세(寄席)<sup>9)</sup>나 강연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 권공장, 노동자 숙소 등을 건설하였다. 소세키는 이 도서실에서 자신의 저서도 두세 권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뛰어난 ‘복리후생’ 설비를 갖

9)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채담, 만담, 야담 등을 들려주는 곳.

춘 건물은 일본인 사원을 위한 시설로서 만철사원 전체가 이러한 혜택을 누린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세키의 설명은 독자의 오해를 불러온다는 점이 지적되었다(野村幸一郎 16). 만철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특정 지역을 돌아보았던 소세키 기행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9월 10일 소세키와 하시모토는 뤼순으로 가서 2박 3일간 머물렀다. 러일전쟁의 격전지였던 뤼순은 일본인들의 주요 관광 코스였는데 소세키 일행이 주로 둘러본 곳도 바로 러일전쟁 유적지였다. 오랜 친구인 뤼순 경시총감 사토 도모쿠마의 도움으로 사토의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타고 러일전쟁을 경험한 군인들의 안내를 받으며 둘러보게 되었다. 10일의 안내자인 중위는 불일이 있다고 4시까지만 안내를 맡기로 했지만 막상 러일전쟁 당시의 이야기가 나오자 병원에 입원한 아내를 잊고 날이 어두울 때까지 산정에서 전쟁담을 들려주었으며, 11일의 안내를 맡은 순사부장 이치가와(市川) 역시 6월에서 12월까지 지붕 아래서 자 본 적이 없고 물구덩이 속에서 포탄을 맞아가며 식사할 틈도 없이 싸웠던 경험담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이처럼 1909년은 아직 러일전쟁의 포화가 가시지 않은 시기였던 것이다.

한편, 소세키는 신시가의 러시아 장군들의 훌륭한 저택을 둘러본 후 관동도독부 민정장관 시라니 다케시(白仁武)의 집에 들르게 되었다. 시라니 역시 소세키의 제국대학 선배였다. 본래는 어느 러시아 대좌(大佐)의 집이었다는 훌륭한 저택에 감탄하면서 소세키가 “이런 집에 살면서 이런 경치를 내려다 보면 내지를 떠난 보상은 충분하네요.” 라고 하자 시라니는 “일본에서는 무리지요.”라고 인정하였다(『夏目漱石全集 7』 494-495). 후에 만주에서 일본으로 귀환한 일본인들의 기억 속에 만주가 고향과 같은 노스텔지어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이러한 ‘내지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호사’에 대한 추억과 미련이 아니었을까?

9월 12일 오후에는 아침에 다롄에서 합류해온 다나카 이사와 사토를 포함한 5명의 일행이 해군항무부에서 해군 중좌 고우노 사킨타(河野左

金太)의 안내로 작은 증기선으로 항만 안을 둘러보았다(夏目漱石全集 刊行會 11). 다롄에서와 마찬가지로 푸순의 일정 또한 소세키의 제국대학 인맥인 사토와 시라니의 배려 아래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특별한 시찰을 하였던 것이다.

소세키와 하시모토는 도중에 쑹웨이청, 닝커우, 탕링즈를 거쳐 9월 19일 평톈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당일로 푸순에 다녀오고 하얼빈에서는 하루 밤을 묵었다. 평톈은 만주족의 중심지인 만큼 주로 청조와 관련된 역사 유적이 많았는데 소세키도 북릉, 소릉, 궁전 등을 둘러보았다.

『만주와 한국 여기저기』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푸순이다. 소세키와 하시모토는 하시모토가 만주에 올 때 배 안에서 알게 되었다는 마즈다(松田)라는 갱장의 초청으로 푸순 탄광을 둘러보게 되었다. 소세키는 마즈다의 인상을 ‘키가 작고 편안한 느낌이라서 도저히 갱장으로는 보이지 않았다’(『夏目漱石全集 7』 559)고 적었으나 마즈다는 고토가 만철 영업을 시작하면서 당시 그가 근무하고 있던 미즈비시(三菱)에 간청하여 초빙한(財團法人滿鉄會 26) 일본 탄광기술의 제일인자 마즈다 다케이치로(松田武一郎) 공학박사였다. 푸순 탄광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갱도를 내려가는 부분에서 연재가 중단되어 본론 직전에 서둘러 끝낸 듯한 느낌을 주지만 소세키는 만철이 건설한 도시 푸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즉, 그는 푸순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 보면서 집집마다 개성을 살린 가옥들과 교회, 극장, 병원, 학교, 갱원들의 주택 등 일본인들이 경영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도쿄의 야마노테(山の手)에 가져다 놓고 바라보고 싶다’고 감탄하였다(559).

이상과 같이 소세키의 50일간의 여행 중 보름 정도의 일정을 분석하여 보았다. 기행문으로서는 미완성작이지만 만철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지 2년 5개월이 지났을 무렵 만주의 생활상과 만철의 사업을 보여주는 점에서 『만주와 한국 여기저기』는 소중한 역사 자료이기도 하다.

이 여행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첫째, 소세키는 만주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인 1909년 10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아사히신문』에 만주여행기를 연재하였다. 따라서 소세키의 개인 경험은 아직은 미지의 땅인 ‘신천지 만주’를 일본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중에 연재가 중단되어 푸순 탄광 입구에서 내용이 끊긴 점, 중간에 개인적 회상이 많이 들어가 기행문의 전체 흐름을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소세키의 만주 여행이 친구의 초청으로 이뤄진 사적인 것이지만 그 친구가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총재라는 점에서 단순한 관광이 아닌 만철의 조직적 지원 아래 이뤄진 ‘공적인 시찰’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시찰 보고서라고 하기에는 사적인 감상이 많이 들어가고 만철의 홍보 내용에 충실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이 글은 여행의 일정을 정연하게 진행하는 형태가 아니라 소세키의 개인적 회상과 인간관계가 녹아 있는 글이다. 그 속에는 메이지시대의 사회상과 소세키 자신의 제국대학 인맥, 만철 조직, 만주 지배 구조 등이 들어 있다.

그러나 소세키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만주 여행기는 일본인들에게 만철과 만주의 실정을 알리는데 도움을 주었던 듯하며, 이후 나가무리는 만주에 가서 강연해줄 문화인의 소개를 소세키에게 의뢰하였다고 한다. 요사노 히로시(与謝野寛)·아키코(晶子) 부부, 기쿠치 칸(菊地寛), 요코미즈 리이치(横光利一), 오사라기 지로(大佛次郎),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등 일류 문화인들이 이때의 성공을 본따 만주로 초대받았다고 한다(財団法人滿鉄會 44).

## 5. 맺음말

나츠메 소세키의 만주와 한국여행을 바탕으로 한 『만주와 한국 여기저기』는 기본적으로 문학작품이지만 그 안에는 1909년 당시 일본 사회의 특성과 만주의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다. 본고에서는 이 글을 문학작품으로서가 아니라 역사 자료로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작품 분석은 첫째, 메이지시대의 엘리트교육시스템과 졸업 이후의 진로를 소세키가 만주에서 만나는 제국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국대학 입학의 전기 과정인 예비문 동기인 나카무라, 하시모토, 사토, 소세키는 20여 년 후 만주에서 만철 총재, 도호쿠대학 교수, 뒤순의 경시총감, 도쿄대학 교수 출신의 『아사히신문』 기자로서 재회하였다. 또한 소세키의 만주 여행을 전면적으로 지원한 것은 그의 제국대학 동기와 선배들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만주라는 공간을 통해 남만주철도주식회사와 관동도독부의 지배의 역사와 당시의 생활상을 고찰하였다. 이 지역은 러시아가 청나라 조정에서 철도부설권을 얻어 경영하던 지역으로서 일본은 러시아의 색깔을 지우고 일본의 영토로서 건설해가는 중이었다. 소세키의 기행문은 시간의 흐름을 쫓아 만주를 소개하는 친절한 안내서는 아니지만 초창기 일본의 만주 건설상을 일본 국민에게 소개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츠메 소세키는 일본이 자랑하는 국민작가일 뿐 아니라 메이지 근대 교육 시스템 속에서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제국대학 교수, 신문사 전업 작가를 역임한 최고의 엘리트였다. 그의 삶과 마찬가지로 그의 만주 여행도 평범한 여행자로서가 아니라 제국대학 선후배와 만주 통치 시스템의 전적인 지원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소세키는 일본이 건설한 만주의 근대적 면모와 더불어 그 안에 사는 중국인, 조선인, 일본

인의 생활상을 솔직하게 묘사하였다. 많은 비판을 받는 작품이지만 그런 점에서 더욱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문학작품을 역사적 관점에서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소세키의 심드렁하고 심상한 말투 속에서 메이지 사회상과 만주의 생활상을 살펴보는 가운데 문학과 역사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인문학으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고바야시 히데오. 『만철 일본제국의 싱크탱크』. 임성모 옮김. 산치림, 2004.  
김영숙. 「근대 일본 여성 고등교육의 발자취: 여자 유학생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39 (2009): 135-160.  
\_\_\_\_\_. 『근대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 선인, 2009.  
나쓰메 소세키. 『나쓰메 소세키 소설 전집 2 회상』. 노재명 옮김. 하늘연못,  
2010.  
岸本美緒. 『東アジアの「近世」』. 山川出版社, 2002.  
北岡伸一. 『後藤新平』. 中央公論新社, 2000.  
久保尚之. 「夏目漱石が見た満州『満韓ところどころ』を読み解く」. 『歴史読本』  
54.9, 2009.  
財団法人満鉄会編. 『満鉄四十年史』. 吉川弘文館, 2007.  
竹内洋. 『学歴貴族の栄光と挫折』. 中央公論新社, 1999.  
夏目漱石. 『夏目漱石全集 7』. 筑摩書房, 2006.  
\_\_\_\_\_. 『夏目漱石全集 10』. 筑摩書房, 2006.  
夏目漱石全集刊行會. 『漱石全集第十六卷』. 夏目漱石全集刊行會, 1928.  
西澤泰彦. 『植民地建築紀行-満州・朝鮮・台湾を歩く』. 吉川弘文館, 2011.  
野村幸一郎. 「交通空間としての満州-夏目漱石と後藤新平」. 『言語文化論叢』3,  
2009.  
秦郁彦. 『戦前期日本官僚制の制度・組織・人事』. 東京大学出版会, 1981.

水谷三公, 『官僚の風貌』, 中央公論新社, 1999.  
百瀬孝, 『事典 昭和戦前期の日本』, 吉川弘文館, 1990.  
『歴史群像シリーズ84 満州帝国』, 学習研究社, 2006.

Crossing the Line between History and Literature  
through Natume Soseki's Travel Essay  
*Here and There in Manchuria and Korea*

Gim, Youngsuk  
(Ewha Woman's University)

Natume Soseki's travel essay *Here and There in Manchuria and Korea* is a work of literature based on his personal experiences in Manchuria and Korea, but it vividly and realistically describes life in Japanese society and characteristics of Manchuria in 1909. Therefore, we would like to analyze this book not as literature but as a historical document.

First, we examined the education system of elites and their life paths after college graduation based on Soseki's personal experience, including the Imperial University graduates whom he met at that time. We found that his trip was supported by colleagues and alumni of Imperial University. Second, we researched livelihoods under Japanese colonialism in Manchuria. Soseki's book did not present its information on Manchuria chronologically, but it still helped the Japanese introduce a developmental process to Manchuria.

주제어: 나츠메 소세키(Natume Soseki), 만주(Manchuria), 제국대학  
(Imperial University), 남만주철도주식회사(South Manchuria  
Railways Corporation), 엘리트교육(Elite Education)

논문제출일: 2012. 04. 05

심사완료일: 2012. 05. 05

게재확정일: 2012. 05. 10